

식민지 근대의 헤테로토피아와 괴담, 그리고 모던의 불안*

이 주 라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식민지 근대 조선의 영토 내에서 존재하였던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에 주목하였다. 근대 질서에서 보기에는 이질적이거나 당대 사회의 희망을 구현했던 헤테로토피아를 찾아서, 그 공간들이 가졌던 실제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런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을 식민지 근대 지식인들이 담론화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근대적 지배 체제에 대한 당대의 또 다른 시각을 알아보았다. 삼일독립운동이 시작되었던 탐동공원과 정신병동인 동팔호실은 근대적 관점에서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그로테스크한 공간이었다. 그곳은 근대성이 실패한 공간들로 표상되었다. 하지만 이 공간 속에서는 독립에 대한 발화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 공간들이 당대 사회의 희망을 담아내는 유토피아로 기능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당대의 지배 체제는 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를 괴담으로 간주하며 폄하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야기인 괴담은 근대의 지식 체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당대의 지배 체제가 불완전함을 드러내었다. 체제의 불완전함은 일상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였다. 이처럼 이 글에서는 헤테로토피아를 괴담으로 왜곡하여 전달하였던 담론화의 방식을 통해 식민지 근대의 질서가 가지고 있던 불안의 한 측면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 헤테로토피아, 괴담(怪談), 탐동공원, 탑골공원, 동팔호실, 정신병원, 그로테스크, 유토피아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01).

1. 헤테로토피아, 눈 먼 오이디푸스의 사막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는 미셸 푸코가 제시한 대안 공간의 개념이다.¹⁾ 이 개념은 ‘다른, 혼종된, 이질적인’의 의미를 가진 ‘헤테로(hetero)’와 ‘공간이나 장소’를 뜻하는 ‘토피아(topia/ topos)’와의 합성어로 글자 그대로 ‘다른 공간’을 의미한다. 이 ‘다른 공간’은 근대의 일상적 공간 배치와는 다른, 일상적 공간과는 이질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근대의 질서는 각각의 공간이 가진 역사성과 장소성을 소거하고 모든 공간을 기능성 중심의 공간으로 재편하였다.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여가 공간과 노동 공간 등과 같이 근대의 일상적 공간은 기능적 특징을 중심으로 배치되며, 그 배치는 서로 대립적인 속성을 띤다. 그리고 근대의 질서는 이러한 공간들을 ‘정상’적인 공간이라 명명한다. 근대의 현실 사회는 이렇게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푸코는 근대의 공간 재편의 방식 속에 숨어 있는 근대적 권력의 속성을 드러내고 해체시키려 하였다. 이를 위해 푸코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현실 공간과는 다른 공간 개념을 제시한다. 하나는 유포피아이고, 다른 하나는 헤테로토피아이다. 유포피아는 현실 사회에 실재하지 않으며, 한 사회가 만들어 내는 관념 속에 존재하는 공간이다. 유포피아라는 관념도 분명 현실 사회에 대한 불만과 이의제기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존재

1) 미셸 푸코는 1966년에서 1967년 사이에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을 3가지 경우에서 소개한다. 그 첫 번째는 『말과 사물』(1966)에서 소개한 것이고, 두 번째는 프랑스 라디오 방송인 프랑스 컬튀르(France Culture)의 강연(1966)에서 유포피아에 대한 주제와의 관련 아래에서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축가 그룹의 초청 강연에서 언급한 것으로, 강연은 1967년에 있었지만 이에 관련한 내용은 푸코의 사후인 1984년에 출판되었다. 이 3가지 경우가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푸코의 직접적인 설명인데, 푸코는 이 3가지 경우 모두에서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아이디어만을 제공할 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설명은 시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은 근대의 공간 배치 속에 드러나는 권력에 대한 비판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은 근대적 공간 배치에 나타나는 권력 양상을 분석하면서 공간의 근대성을 해체하고 반박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P. Johnson, “What it about?” & “Brief history of the concept of heterotopia”, *Heterotopian Studies*, [http://www.heterotopiastudies.com], 2016, 참조. 참고로 이 사이트는 헤테로토피아에 관한 전 세계의 연구를 모아 놓은 사이트로 헤테로토피아 연구에 접근하고 시작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하는 유토피아²⁾이며, ‘현실 사회에 의해 고안되고 그 안에 제도화되어 있는 유토피아³⁾’라는 점에서, 그 현실적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른 정상적이라고 불리는 공간들에 이의제기하고 반박할 수 있는 공간⁴⁾’이 되며, 근대적 공간 질서를 해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즉 일상적 질서와 ‘다른 공간’이 존재함으로써 현실과 다른 삶의 가능성을 체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현실적 질서의 폐쇄성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해체시켜, 체제의 경계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대의 일상을 살아가는 주체들은 헤테로토피아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 푸코는 한 공간을 헤테로토피아로 만드는 것은 그 속에서 주체들이 행하는 상상과 환상의 놀이라고 말한다. 주체가 즐기는 쾌락의 순간이 그 공간의 배치를 현실의 정상적 질서 속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이다.⁵⁾ 현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상상과 환상을 충족시키는 장소일 수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는 근대 도시 사회에서 느끼는 근대적 주체의 결핍을 충족시키는 장소일 수 있다. 노동의 질서를 벗어난 휴양지, 근대의 선형적 시간관을 거스르는 박물관과 도서관, 모든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매춘굴, 정상에서의 일탈을 감행한 이들의 공간인 정신병원 등이 헤테로토피아의 장소이다. 이런 다른 공간들 속에서 일상의 주체는 일상 속에서 금지되었던 모든 욕망을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험한다. 현실의 금기와 억압을 넘어서 욕망이 충족될 수 있다고 가정된 공간은 어떤 의미로는 유토피아일 수 있다. 그러나 금지된 욕망이 현실의 주체에 의해 실제로 충족될 때 그 공간은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지되었던 근친상간을 실제로 행한 오이디푸스가 살아가는 사막처럼,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의 금기를 넘어서 주체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헤테로토피아에서 일상의 주체들은 억압된 욕망의 해방과 일탈을 실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은 현실 체제에 불안을 야기한다. “헤테로토피아는 불안을 야기하는데, 이는 아마 헤테로토피아가 언어를 은밀히

2)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지성사, 2014, 12쪽.

3) 위의 책, 13쪽.

4) 위의 책, 13쪽.

5) 위의 책, 14쪽.

전복하고, 이것과 저것에 이름 붙이기를 방해하고, 보통명사들을 무효가 되게 하거나”⁶⁾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의 체재에 의해 체재를 받으며,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장소에서 추방당한다. “그것은 실제로 위치를 한정할 수 있지만 모든 장소의 바깥에 있는 장소들이다”⁷⁾ 그곳은 눈먼 오이디푸스가 추방당한 사막이다. 테베의 바깥에 존재하는 사막은 금기를 어기고 금지된 욕망을 충족시킨 오이디푸스가 살아가는 곳이지만 동시에 금기 위반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막은 유토피아이면서도 위로와 위안을 주지 못하고 위협에 대한 불안을 작동시킨다. 헤테로토피아는 일상을 살아가는 주체들이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곳이다.

이렇게 매혹적이면서도 두려운 헤테로토피아를 어떻게 받아들일느냐에 따라 각 사회의 성격은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한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헤테로토피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 사회의 결핍과 욕망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사회의 지배 질서가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계 맺는지를 통해 그 사회의 성격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헤테로토피아는 근대성의 질서 그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므로 한국 근대 질서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의 근대가 헤테로토피아라는 공간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근대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에서 근대가 시작되었던 일제강점기에 주목할 것이다. 이 시기는 식민지 지배 하에서 근대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시기였다. 식민지 근대를 겪으며 나타난 한국적 근대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식민지 근대 사회에 실제했던 헤테로토피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작동 방식은 어떠한지, 그것이 근대적 주체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 식민지 근대의 헤테로토피아는 대개 만주와 같은 정치적 공간이나 극장, 온천, 백화점 등과 같은 근대적 소비 공간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⁸⁾

6)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규현 역, 민음사, 2012, 11쪽.

7)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지성사, 2014, 47쪽.

8) 일제강점기 만주라는 공간을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으로 분석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영희, 「일본소설 속의 헤테로화(化)하는 공간, 만주 -투영(投影), 반전(反轉), 이질성(異質性)의 병치-」, 『人文研究』 70, 2014.

만주는 일제의 대륙 진출의 꿈을 실현한 공간으로 일제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왕도낙토(王道樂土)’의 유토피아로 선전되었던 공간이다. 하지만 그곳은 중국인, 러시아인, 만주인들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입장에서는 영토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면서도 생명과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근대 만주는 헤테로토피아의 속성을 간직한 공간으로 일제 지배 체제의 이상과 허상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극장이나 온천 혹은 백화점과 같은 공간은 식민지에 도입된 ‘모던’한 문화가 만들어낸 환상이면서 동시에 ‘모던’한 문화라는 기표로 봉합한 식민지 도시 문화의 실상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 두 가지 공간은 당대 사회의 헤테로토피아로 기능하며 식민지 근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다만 만주는 식민지 조선 영토 밖의 공간이며, 모던한 문화는 근대의 체제를 경제적 소비의 영역에서만 이해하게 해 준다는 한계가 있다. 식민지 근대의 헤테로토피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조선 영역 내의 일상 공간 속에 작동하는 헤테로토피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민지 근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자본주의 소비 체제에 집중되었던 관심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일상 공간 속에 존재했던 헤테로토피아 중 근대 소비문화의 상징으로 대표되지 않았던 공간들에 주목하고자 한

-
- 김미경 「상상계와 현상계의 사이: 헤테로토피아로서의 하얼빈」, 『人文研究』 70, 2014.
 홍은숙, 「헤테로토피아로의 여정: 만주 웨스턴 <놈놈놈>과 스파게티 웨스턴 <놈놈놈>에 나타난 비선형 산만한 공간」, 『人文研究』 70, 2014.
 백승숙, 「만주, 담론의 불안, 혹은 헤테로토피아」, 『人文研究』 74, 2015.
 곽은희, 「틈새의 헤테로토피아, 만주」, 『人文研究』 70, 2014.
 노상래, 「헤테로토피아, 제3의 눈으로 읽는 만주」, 『人文研究』 70, 2014.
 김학중,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다른 공간” 문제 연구 - 『만주시인집』과 『만선일보』 문예란 시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3-1, 2015.
 조정우, 「만주의 재발명」, 『사회와 역사』 107, 2015.
 서재길, 「나윤규 영화와 만주」, 『人文研究』 70, 2014.
 - 식민지 조선 사회 내에 존재하는 근대적 소비 공간을 헤테로토피아의 예로 분석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종대, 「근대의 헤테로토피아, 극장」, 『상허학보』 16, 2006.
 이진형, 「식민지 시기 여가와 불모의 헤테로토피아」, 『批評文學』 57, 2015.

다. 식민지 근대에 존재했던 또 다른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을 통해 식민지 근대의 작동 방식과 그 특징의 새로운 면모를 밝혀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식민지 근대의 그로테스크, 탐동공원과 동팔호실

식민지 조선의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공간은 ‘그로테스크’라는 코드로 포착되었다. 그로테스크는 ‘에로(틱), 그로(테스크), 넌센스’의 문화가 유행하면서 수입되었던 개념이다. 그로테스크는 “괴기(怪奇)란 말⁹⁾로 번역되며, “엽기적 의미에서 백 퍼-센트 기괴미¹⁰⁾를 가리킨다고 이해되었다. 그로테스크는 미학적 용어였지만, 당대 유행하는 문화를 상징하면서, 일상적 삶의 지형을 재편하는 코드화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때 그로테스크는 “이방(異邦)의 수토(殊土)나 고대 민족의 진풍(珍風) 기속을 찾거나¹¹⁾” 하며 지금 현재의 시·공간을 벗어난 원시적이고 이국적인 시·공간에 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현실의 일상적 질서를 벗어나는 이질성에 대한 탐닉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그로테스크는 일상 속 이질성에 대한 관심을 대표하는 기호였다.

식민지 근대의 ‘모던’한 문화 관점에서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그로테스크한 공간은 탐동공원이라 불리기도 하는 탐동공원(塔洞公園)과 총독부 병원의 정신병동인 동팔호실(東八號室)이었다. 1919년 삼일운동이 지나간 이후 탐동공원은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방치되면서 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어서 배제된 것들이 모이는 장소로 전락하였다. 『별건곤』에서는 ‘경성의 다섯 마굴(魔窟)’을 탐방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탐동공원을 들고 있다.¹²⁾ 그곳은 할 일 없는 게으름뱅이들이 모여 팔자를 한탄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는 장소로 그려진다. 더 나아가 탐동공원은 온갖 범죄가 이루어지는 온상이기도 하였다. 1930년대 중반이 되면 탐동공원에서는 유아나 노파 납치 사건이 빈

9) 「신어해설」, 『동아일보』, 1931. 2. 9.

10) 편석춘, 「첨단적 유행어-「그로-」Grotesque」, 『조선일보』, 1931. 1. 4.

11) 「신어해설」, 『동아일보』, 1931. 2. 9.

12) 「상상 뱃짓 세상, 경성의 다섯 마굴」, 『별건곤』 23, 1929. 9, 156쪽.

번하게 일어나는데, 이 모든 사건은 “기괴한 실종사건”으로 보도되었다.¹³⁾ 이렇게 탐동공원이라는 장소는 현실의 상식적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기괴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정신병이나 정신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정신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발광을 한 사람들은 그 자체로도 비정상으로 여겨졌지만, 이러한 비정상인들 혹은 그들이 일으킨 사건을 식민지 근대에는 ‘그로테스크한 사건’이나 ‘괴담 같은 사실’로 인식하였다.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아내의 시체와 함께 기거한 남자의 일은 발광한 정신병자의 문제로 다루어졌으며, 그 사건은 아현동에서 일어난 ‘그로 사건’으로 명명되었다.¹⁴⁾ 이처럼 정신병의 문제는 대부분 ‘괴담’이라는 표제로 소개되었으며, 그로테스크의 관점으로 포착되어 전달되었다.

탐동공원이나 동팔호실이 그로테스크하고 괴기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식민지시기 ‘모던’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식민지시기에도 ‘모던’이라 명명되었던 근대성은 몇 가지 층위로 나뉘어져 이해되었다. 첫째로는 시대로서의 근대가 있다.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중세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로서의 근대가 근대에 대한 첫 번째 이해의 관점이다. 둘째로는 경제적 영역에서 자본주의 소비 체제로 상징되었던 모던 문화가 있다. 근대성이나 ‘모던’을 이해하는 가장 대중적인 관점이기도 하다. 셋째로는 논리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진리 추구의 관점에서 포착되는 근대가 있다. 이외에도 정치적 영역에서 진보와 발전을 통해 수립하는 근대적 주권 국가의 기반이 되는 근대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나, 이 지점은 식민지 근대에서는 실제로 억압되었던 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모던’이라 칭해졌던 근대성에 대한 이해는 사회적 영역별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탐동공원과 동팔호실이 그로테스크하게 여겨졌던 이유는 이 두 공간이 위에서 정리한 모든 관점에 미루어 봤을 때, 모던이 실패한 공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두 공간은 당대 인식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제대로 된 근대성이 구현되지 않은 공간으로 여겨졌다. 그곳에서는 모던에 대한 집착

13) 「노파 실종 괴사건, 탐동공원서 부지거처」, 『매일신보』, 1935. 6. 11, 2쪽.

14) 「腐爛한 愛妻屍와 寄居半臥 半個月」, 『매일신보』, 1934. 4. 10, 2쪽.

이 과잉되게 표출되거나, 모던에 대한 이해가 결핍된 태도가 나타났다.

동팔호실에서는 종종 모던이라는 기표에 과잉 집착하는 양상이 포착되었다. 신문과 잡지에 소개된 정신병원 취재 기사에서는 동팔호실에 근대 고등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도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기자는 자신의 중학시절 동창이자 아메리카에 유학까지 갔다 온 친구를 동팔호실에서 만나기도 한다.¹⁵⁾ “병자 중에난 일즉이 군수와 군서기를 지닌 이도 있으며 공업학교를 졸업한 청년도 잇난대”¹⁶⁾ 이런 모던한 문화의 경험자들도 정신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정신병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에인의 일흠을 부르며 팔을 버리는 청년 조선의 왕이 되얏다고 팔을 쏘 내는 교원 일억만원의 재산을 차저야 하겠다고 내닷는 중로인 자나깨나 머리만 빚고 잇는 처녀 그들이 모도혀 사는 동팔호에는 영원히 봄빛은 그 낮을 일코마는 것이다.¹⁷⁾

동팔호실에 격리된 정신병자들의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연애병 환자, 영웅병 환자, 돈 집착증 환자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돈 집착증 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돈을 잘못 관리 하여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 중 정신을 놓은 사람들이다. 파산을 하였거나 사기를 당하였거나 하여 정신을 잃은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들은 “들으니까 밤이나 나지나 돈타령을 부른다고 한다.”¹⁸⁾ 또는 “누만 쓰면 백만원 천만원 하는 병”¹⁹⁾이기도 하다. 이들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실패자이면서 동시에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여 돈에 대한 과잉된 욕망을 드러내는 환자이기도 하다.

영웅병 환자는 말 그대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망상에 빠진 사람²⁰⁾이기도 하지만, 근대 체제로의 전환 속에서 정치권력을 얻으려다가 망상에 빠진 사람

15) 「함춘원 뒤 동팔호실(하)」, 『매일신보』, 1921. 9. 12, 3쪽.

16) 「춘광을 등진 동팔호실」, 『동아일보』, 1920. 4. 25, 3쪽.

17) 「봄의 설음, 봄의 깃뚝(1)」, 『동아일보』, 1924. 4. 20, 2쪽.

18) 「밋친 이들의 나라, 동팔호실 잠입기」, 『별건곤』, 1931. 4, 11쪽.

19) 「동팔호실 방문기(2)」, 『조선일보』, 1927. 3. 21, 2쪽.

20) 「함춘원 뒤 동팔호실(중)」, 『매일신보』, 1921. 9. 11, 3쪽.

도 있다.²¹⁾ 이봉격이라는 인물은 평안북도에서 면서기를 지냈던 사람으로 만세 운동 당시에는 독립단을 밀고하며 출세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 사람이었다. 이후 그는 누군가 가짜로 보낸 군수 사령서를 진짜로 믿고 군수로 도임을 갔다가 자신이 진짜 군수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망상에 빠져 동팔호실에 입원했다. 이들은 모두 정치권력에 대한 과잉된 욕망을 표출한다.

무엇보다도 모던에 대한 과잉된 욕망을 보여주는 이들은 연애병 환자들이다. 이들은 근대적 연애를 실현시키겠다는 열망에 빠져 있다. 윤심덕에게 실연당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여 윤심덕과의 사랑을 이루겠다는 망상에 빠진 환자,²²⁾ 모든 여성을 섭렵하고자 한 90세 노인, 이 노인과 사람에 빠져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 앞에서 발광을 한 19세 신여성²³⁾ 모두 열정적 사랑에 대한 과잉된 욕망을 보여준다.

그에 반해 탐동공원은 모던한 생활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나 모던한 세계에 적응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다. 탐동공원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대개 사주쟁이, 룬펜, 고담꾼들이다.

園内の 기분은 몹시도 침체하고 혼란하아서 마치 5, 6월 똥물에 구택이 가 노는 것 같하다. 갓스고 혼웃입은 노인, 색웃 입은 애들, 중학생, 노동자, 걸인, 지게꾼, 「못지」 장수, 양복쟁이, 왜 친구 각종각층의 인간들이 구석 구석이 안자서 또는 서서 몇달이라도 조타는 듯이 즐콯하니 어물어물한다.²⁴⁾

탐동공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기력하게 그려진다. 이곳은 현실에서 생산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게으름뱅이들의 집합소’가 되었다. 할 일이 없는 룬펜들이 모이거나 사주를 들으며 팔자에 인생을 맡겨 버리는 사람들, 옛날이야기를 듣고 즐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사주쟁이들이나 사주를 물어보

21) 「현대 정치의 인상인 동팔호실」, 『조선일보』, 1923. 4. 15, 3쪽.

22) 「김·윤 양인이 정사하기까지(2)」, 『동아일보』, 1926. 8. 7, 2쪽.

23) 「기문괴담, 별다른 사람의 별다른 생활-90세 노화가 19세 신여성 연애가 발광화!」, 『시대일보』, 1926. 1. 1.

24) 「기자 대출동 1시간 탐방 대경성 백주 암야행」, 『별건곤』 20, 1929. 4. 1, 135쪽.

는 사람들은 이성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운명에 자신의 삶을 맡겨 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성이 작동하는 근대 세계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집단이다. 고담꾼 또한 삼국지연의의 활자본 판소리계 소설인 『화용도실기』와 같이 다른 나라의 옛날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중세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래한 근대의 시대정신과는 맞지 않는 집단이 된다. 롬펜들은 근대의 경제 체제에서 생산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집단이다. 이러한 근대 부적응자들의 집합소가 탐동공원이라고 그려진다. 이들은 모던한 세계로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모던한 세계 속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동팔호실에서 드러나는 모던의 과잉이든, 탐동공원에서 보이는 모던의 결핍이든, 이 공간들은 결국 모던한 세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집합소로 재현된다. 이 공간 속에 존재하는 군상들은 체제 적용에 실패한 자들이고 낙오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모던한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공간으로 포착되는 것이다. 이 그로테스크한 공간은 ‘폐허’와 같은 ‘쓸쓸한’ 장소로 묘사되면서, 생명력을 잃은 공간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이 공간들은 단지 버려진 공간으로 머무르지는 않았다. 탐동공원과 동팔호실은 모던한 체제로의 전환에 실패한 사람들의 무기력함이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이 공간은 근대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식민지 지배 체제 자체의 실패를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체제 부적응자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 체제의 균열과 틈을 보여준다. 경제의 영역에서, 합리성의 영역에서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주체들이 합당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실패자와 낙오자가 모여드는 공간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간이 단지 실패를 상징하는 공간이거니와 하였다면 탐동공원이나 동팔호실이라는 공간은 동시대인들의 외면 속에 그저 버려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 공간들은 실패 외에 또 다른 상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폐허로 변해가면서도 당대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III. 유토피아, 금지된 기표의 발화

탑동공원과 동팔호실은 식민지 지배 체제의 실패 속에서 식민지 피지배인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를 실현했던 공간이었다. 당국의 의도적인 방치 속에 폐허로 변해가던 탑동공원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공간의 존재 의의를 확보하였던 것도, 당국의 비용 삭감 정책으로 규모가 축소되는 와중²⁵⁾에도 정신병원에 대한 매체의 관심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 공간 속에서 구현되었던 유토피아적인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유토피아 구현의 가능성이 이 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을 끌어내면서, 그 공간들이 에너지를 생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식민지 근대라는 사회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유토피아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독립’이었다. 하지만 ‘독립’이라는 단어는 식민지 근대 사회에서 발화될 수 없는 금지된 기표였다. “대정 팔년 삼월 일일 탑동공원에서 만세 소리가 이러니며 명월관 지점에서는 조선민족대표자 삼십삼인이 회합하여 ■■■ 선언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조선 ■■■ 만세를 고창”²⁶⁾하였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에서 ‘독립’이라는 글자는 검열에 걸려 삭제되었다. 조선의 독립이라는 것은 누구나 꿈꾸었던 유토피아였지만,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기표였다. 이렇게 금지된 단어는 그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의미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존재를 유지한다. 직접적으로 발화할 수 없는 기표를 지칭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의들을 우회하면서 사라진 기표는 오히려 더욱 풍부한 기의를 획득하게 되고, 현실 사회 속에서 실제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독립이라는 기표가 금지되면서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과 긍정의 의미들이 독립이라는 기표를 설명해 내었다. 그러면서 독립이라는 기표는 막연하고 모호하며 범박하지만 당대 사회의 모든 희망을 담은 기표로 작동하였다.

25) 총독부 의원의 정신병동인 동팔호실은 1926년 제국대학이 설립된 후 1928년에 제국대학 병원에 귀속된다. 이 과정에서 동팔호 병동은 제국대학 약물학교실의 건축지가 되고, 정신병동은 신설하게 되었는데, 예산 축소와 시간 촉박으로 인해 환자를 15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열악한 시설로 변모하였다. (『將次 改善될 東八號室』, 『매일신보』, 1926. 12. 7, 2쪽.; 『갈곳 업시된 가련한 환자들』, 『매일신보』, 1928. 1. 31, 2쪽.)

26) 「풍우 십오년, 대정9년 서기 1920년」, 『동아일보』, 1935. 4. 1, 3쪽.

탑동공원은 독립운동이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현장이다. 억압적 체제를 뛰어넘어 독립이라는 기표를 발화하며 독립을 위해 행동했던 공간인 것이다. 탑동공원은 삼일운동의 상징이었으며, 이러한 상징성을 바탕으로 6·10만세 운동 등의 여러 가지 체제 저항 움직임들이 탑동공원을 거점삼아 이루어졌다. 삼일운동 이후 탑동공원과 독립운동을 연결시키는 공공연한 발화는 금지되었지만, 동아일보와 같은 신문에서는 매년 3월 1일을 즈음해서 탑동공원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정확히 3월 1일에는 탑동공원에 대해 언급할 수 없었고, 탑동공원의 사진도 ‘쏟아진 봄’을 맞이하는 공원의 팔각정을 보여주는 데에 그칠 수밖에 없었지만, 탑동공원이라는 공간은 조선의 독립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그 가능성을 현시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탑동공원은 사주쟁이, 룬뎨, 고담꾼들의 대변되는 시대착오의 공간이자 무기력한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국 연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조선의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식인들이 모여드는 생명력 있는 공간이 되었다.

동팔호실은 금지된 기표를 직접 발화하는 사람들의 집합소였다. 식민지 체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일본인에게 반감을 표하거나 독립을 소리 내어 말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인으로 분류되어 정신병원에 격리되었다. 『조선일보』 기사는 동팔호실에 있는 정신병자들을 분류하여 설명하면서, “외국의 정신병자는 연애팡이 만흐나 조선의 환자는 모다 정치광인이라고” 분석하였다. 과연 동팔호실에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대개 조선의 독립을 꿈꾸는 이들이었다. “혹은 일본인을 너여 쫓는다는 등의 소리를 만히 하며 쏘한 당국을 꾸짖는 일이 만타고 한다.”²⁷⁾ “그 외에도 경상남도 출신의 강씨라 하는 여자는 자칭 녀장군(女將軍)이라 하여 사람만 만히 모히면 자기의 아들이 임검이 될 터인데 일본놈이 나라를 내놋치 안으니 한 칼에 베여 죽이갠다 하며”²⁸⁾ “그 외에 정씨라고 하는 여자는 원릭 팔년 동안을 나려오며 동팔호실을 먼치 못하는데 역시 총독부의 불평으로 일본인을 꾸짖는다”²⁹⁾ 이

27) 「현대 정치의 인상인 동팔호실」, 『조선일보』, 1923. 4. 15, 3쪽.

28) 위의 기사.

29) 위의 기사.

와 같이 정치적 발언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로 치부되어 동팔호실에 격리되었고, 그로 인해 동팔호실은 역설적이게도 조선의 독립을 가장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신문이나 잡지 또한 정신병원에서의 정신병자의 발언이라는 보호막을 두른 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동팔호실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이 철폐된 공간이기도 하였다. 동팔호실에는 독립운동의 후예들도 있었다. 이들은 집안사람이 독립운동과 관계되는 바람에 집안이 기울게 되는 과정에서 정신에 이상을 일으킨 사람들이다. 독립 운동 단체 대동단 사건에 연루되었던 김가진 씨의 아들 김용한(20)은 아버지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세상을 달리한 후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정신에 이상이 생겨 동팔호실에 입원하였다.³⁰⁾ 반면 동팔호실에는 조선인 차별주의자 일본인도 함께 입원해 있다. 1921년 경성의학 전문학교에서 수업용으로 쓰는 해골이 없어지자 이 모든 문제를 조선인 학생의 잘못으로 돌려 문제를 일으켰던 구보 박사 또한 동팔호실 환자가 되었다. 사건 당시 조선인 학생들의 강경한 단체 행동에 놀랐던 타인지 구보 박사는 해골 사건 이후 정신 이상으로 동팔호실에 입원했던 것이다. “구보 박사는 해골 사건에 혼이 난 까닭이든지 병실에 잇서서 조선 사람만 보면 병원의 하인이라도 부모 이상으로 공대를 하고”³¹⁾ 조선 사람들을 무서워한다. 정신병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은 차별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던 당대 조선인들에게 알지 못할 쾌감을 선사하여 주었을 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정신병원은 현실에서 피폐한 삶으로 내몰렸던 조선인들과 현실 속 특권을 남용하였던 일본인이 평등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라는 환상이 만들어졌을 지도 모른다. 일본 최고의 엘리트가 정신병원 안에서는 오히려 조선인들에게 공손히 대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이 철폐된 세상, 조선인의 권리가 보장되거나 조선인이 일본인 우위에 설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다.

탐동공원과 동팔호실은 이처럼 금지된 욕망이 실현되는 유토피아와 같은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현실 속에서 지워진 기표인 독립을 발화할 수 있는 공

30) 「김가진 씨 아들 김용한 군은 동팔호실에」, 『동아일보』, 1924. 8. 8, 2쪽.

31) 「휴지통」, 『동아일보』, 1922. 7. 12, 3쪽.

간이었으며, 독립에 대한 열망을 행동으로 실천하였던 공간이었으며, 현실의 차별적 질서를 넘어선 공간이었다. 그곳은 식민지 근대에 실제로 존재하는 유토피아였다. 그러므로 탑동공원과 동팔호실은 단순히 기피한 폐허에 머물지 않고, 유토피아를 현실 속에 구현하는 헤테로토피아가 될 수 있었다. 유토피아의 열망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배 체제 속에서 배제 당하여 폐허가 된 상태에서도 그 공간들은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탑동공원과 동팔호실이라는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이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 체제 속에서도 피지배 조선인들은 독립이라는 유토피아의 실체를 확인하며, 그 가능성을 확인하며 현실을 살아나갈 수 있었다.

IV. 괴담 생성의 헤테로토피아와 모던의 불안

헤테로토피아는 금지된 욕망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 유토피아 실현의 가능성을 열어 둔 공간이기 때문에 현실의 일상적 질서에 불안을 야기한다. 헤테로토피아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공간에 이의 제기를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현실의 지배적 질서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식민지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였던 현실 사회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열어둔 공간인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적 질서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헤테로토피아에 내포된 유토피아의 가능성은 당대의 조선인들에게 직설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 현실의 질서를 수정할 수 있는 헤테로토피아의 가능성은 항상 왜곡되어 전달되었다.

그렇다면 식민지 근대의 헤테로토피아는 어떤 방식으로 왜곡되었을까. 이는 당대인들이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을 담론화하고 표상화하는 방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헤테로토피아의 가능성은 현실의 검열을 거친 언어와 근대의 합리성이라는 논리의 틀을 거친 사고방식을 통해 현실적으로 발화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언어와 논리라는 도구를 주도적으로 다루었던 주체는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대중적 활자 매체를 주도한 식민지 근대의 지식인들일

것이다. 식민지 근대 헤테로토피아가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을 통해 드러나는 식민지 근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헤테로토피아의 존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발화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을 담론화하고 표상하는 주체였던 식민지 근대 지식인들의 인식적 특징까지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탐동공원과 동팔호실이라는 식민지 조선의 일상 영역에 존재하던 헤테로토피아는 모두 왜곡의 방식을 통해 전달되었다. 근대적 소비문화 속에서 탄생되었던 극장이나 백화점과 같은 헤테로토피아가 환상 구현의 방식을 통해 작동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지점이다. 소비의 영역은 식민지 피지배인들이 최소한의 주체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일체가 허용한 지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적 소비문화의 향유는 근대적 주체로 행동하고 있다는 환상을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근대적 소비문화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탐동공원과 동팔호실은 이런 환상 구현의 방식으로 작동할 수 없었다. 탐동공원과 동팔호실이라는 공간 그 자체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과 이야기들은 왜곡을 거쳐서 전달되었다. 식민지 근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질서를 넘어선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억압되어야 했다. 이 억압을 넘어서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왜곡밖에 없었다. 억압된 것의 귀환이 공포스러운 형상으로 왜곡되어 의식의 표면에 도달하는 것과 같이 탐동공원과 동팔호실이라는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의 검열을 벗어날 수 있는 방식으로 왜곡된 후에 담론화될 수 있었다.

이 왜곡의 방식은 바로 그 공간 자체 혹은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과 이야기를 ‘괴담’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탐동공원이나 동팔호실이 괴담의 유통지가 되고 그곳에 관한 이야기가 모두 괴담으로 치부되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근거 없는 허황된 일들이 되어 현실적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탐동공원은 괴담의 진원지이자 유통지였다. 만화가 최영수는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서울 풍경을 스케치 하면서 탐동공원을 “고담, 괴담, 만담에

썩긋뻥긋³²⁾하는 청중들이 모여든 곳으로 그려낸다. 탑동공원에 모여든 고담꾼들은 조선 시대 대중들의 흥미를 끌었던 판소리계 소설이나 가정소설 그리고 영웅소설들을 들려주기도 하였지만, 조선의 역사와 관련된 신화나 전설 등도 들려주었다. 그런데 이런 옛날이야기들은 모두 “神話의 구로테스크”로 인식되었다. “신화적 구로테스크”는 “노파들의 입에서 풀여 나오는 神話 怪談”을 의미하였다.³³⁾ 이렇게 탑동공원의 고담은 근대의 합리적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화나 괴담으로 받아들여졌다. 탑동공원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거나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던 것이다.

탑동공원이 괴담의 유통지가 되면서 탑동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국연설 또한 비정상적인 발언으로 간주되어 괴담으로 전락하였다.

十日 오후 八시 경에 탑동공원(塔洞公園) 안에서 三十 가량 된 시골학자 비슷한 사람이 양지 한 장에다 시국(時局)의 관한 문제와 세상의 불평을 모필로 써서 부치고 수십명 사람이 모힌 가운데에서 불온한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썰매춤 행순하는 종로서원이 발견하고 즉시 그 사람을 검거하고 불온문까지 압수하여 본서로 인치하였는데 방금 동 서 고등계에서는 엄중한 취조를 거듭하는 중인 바 그 사람은 충북 청주(忠北 淸州) 출생의 최모(崔某)(30)로 세태가 변하여 감에 싸려서 생활난에 싸이지게 되자 극도로 변민하는 뜻해 정신의 이상이 생기어 수개월전부터 집을 나와가지고 조선 각처로 도아다니며 그와 가터 불온한 강연을 하게된 것이라 한다.³⁴⁾

인용문에서처럼 탑동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실 체제에 대한 비판 및 시국 문제에 대한 연설은 모두 정상적이지 않은 발언으로 간주된다. 시국에 대한 문제와 세상에 대한 불평은 모두 정신 이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발광의 일종일 뿐이다. 최모의 발언을 정신 이상의 문제로 왜곡하면서 시국에 대한 부정적 발언은 일상의 상식적인 논리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게 된다. 이처럼

32) 최영수, 「도회가 그리는 만화 풍경-탑동공원에서 고담, 괴담, 만담에 썩긋뻥긋」, 『동아일보』, 1933. 9. 6, 5쪽.

33) 一記者, 「巨人 金富貴를 料理했소」, 『별건곤』 32, 1930. 9, 124쪽.

34) 「塔洞公園에서 演說하다 被逮」, 『매일신보』, 1931. 8. 15, 2쪽. (밑줄은 인용자.)

탐동공원은 근대의 합리성에서 벗어난 괴담이나 정신 이상자들의 발언이 행하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틀 속에서 탐동공원을 둘러싼 유토피아 실현의 가능성과 희망은 믿을 수 없는 괴담으로 전락하게 된다.

탐동공원에서 이루어진 시국 발언이 정신병으로 간주된다면, 정신병은 어떻게 괴담이 되는 것일까. 괴담이 정신병을 전달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괴담에서는 일단 현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원인을 정신병 때문이라고 지목한다. 『삼천리』에서는 예쁜 신부를 맞이한 새신랑이 첫날밤 갑자기 사라졌다가 몇 달 후에 정신상실자의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괴담의 하나로 소개하였다.³⁵⁾ 여기에서 화자는 새신랑이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는 신부가 너무 예뻐서 흥분한데다가 낙마까지 하여서 정신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정리한다. 이처럼 정신병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사실에 이유를 제시하는 데에 이용된다.

하지만 괴담이 진정한 괴담으로 전달되는 것은 정신병이라는 원인 규명이 소용없어질 때이다. 이는 정신병 그 자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기 때문이다. “이 정신병이라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지금까지 확실한 원인을 알지 못하여 의학 중에 치료 방법이 데일 뒤썬러진 바”³⁶⁾이다. 일상의 상식적 질서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정신병 때문이라고 정리하여도, 사실 정신병이 왜 발병하였는가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 일의 원인 규명은 불가능해진다.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 상식적인 질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괴담으로 유통되는 것이다.

현실 속에서 괴담은 공포를 유발한다. 그 이유는 괴담이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의 경계, 상식과 그 너머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³⁷⁾ 괴담은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알려지지만, 그 사건의 원인과 이유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기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달된다.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그러한 사실의 존재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도 없다. 이렇게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경계에서

35) 백량성, 「너름밤의 괴화」, 『삼천리』, 1934. 6.

36) 「현대 정치의 인상인 동팔호실」, 『조선일보』, 1923. 4. 15, 3쪽.

37) 이주라, 「일제강점기 괴담의 특징과 한국 공포물의 장르적 관습」, 『우리문학연구』 45호, 2015, 366쪽.

주체는 자신의 이성이 근거한 논리 기반을 의심하게 되고, 거기에서 불안이 발생하며, 공포가 조장된다. 이것이 괴담이 공포를 유발하는 메커니즘이다.

괴담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현실에서 실제 존재할 지도 모르는 이상한 사건들을 보여주며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다. 식민지 근대에 유통되었던 괴담도 이와 같은 불안과 공포 유발의 방식을 공유한다. 『매일신보』의 괴담특집에 실린 「묘지이변」은 이러한 괴담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심진사댁 손주 며느리가 밤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을 한 채 공동묘지로 가기에 뒷조사를 해 보니 여우에 씌어 사람의 시체를 파먹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심진사댁 며느리가 여우의 장난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끝맺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보여준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해 보기도 하고, 경찰을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총독부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받아먹기도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여자는 죽고 그 여자의 남편은 서울에 기거한다고 한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는 유물사관을 믿는 친구조차도 괴이한 이야기라 감명하였다는 점을 덧붙이며, 이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도 규명할 수 없었기에 괴담이라고 정리한다.

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당대에 이해가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되었다. 전근대 무속에서부터 근대의 공권력, 그리고 근대 의학이라는 과학의 영역, 더 나아가 근대의 합리성을 구현하는 유물사관까지 심진사댁 며느리의 이상 행동을 설명해 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괴담은 근대의 체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음을 드러낸다. 현실의 상식적인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당대의 지식 체계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괴담이 전달하는 일들은 근대의 합리적 지식 체계 하에서도, 근대의 진보적인 발전 사관을 통해서도, 근대의 공권력을 통해서도 포착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함을 증명한다.

괴담은 현실 세계의 균열과 틈을 노출시키면서 자신의 존재가 오히려 허상이 아닌 진실일 수도 있음을 드러낸다. 원인을 알 수는 없고 믿어지지는 않지만 심진사댁 며느리의 남편이 현실에 존재하여 그 사건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듯이, 탐동공원과 동팔호실을 둘러싼 괴담도 식민지 근대의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인식 하에서 제대로 설명되지는 않지만, 사실일 수 있는 것이다. 탐동공원과 동팔호실이라는 헤테로토피아의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괴담의 방식으로 전달될 때, 그것은 근대적 질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면서, 그 균열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적 진실을 드러낸다.

이러한 방식으로 살펴볼 때 헤테로토피아는 근대적 질서에 대한 불안을 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민지 근대의 지식인들이 탐동공원과 동팔호실의 이야기를 괴담이라는 방식으로 포착하였을 때, 오히려 그들은 근대적 질서 체계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이 확실치 않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다. 탐동공원과 동팔호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근대적 지식 체계로 믿을 수 없는 ‘괴담’이지만, 그 괴담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었다는 점은 근대적 지식 체계의 허점을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식민지 근대 지식인들이 기반하고 있었던 지식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연쇄적으로 모던한 문화, 근대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 방식, 더 나아가 근대화를 통해 정당화하려고 하였던 식민 통치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진보와 발전을 통해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근대 지식인들의 정치 인식과 정치적 태도 모든 것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민지 근대 지식인들은 모던의 기준에 맞지 않는 탐동공원과 동팔호실이라는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을 괴담의 방식으로 전달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허상으로 취급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괴담이 괴담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면서 모던한 세계의 허점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은 식민지 근대를 살아갔던 근대적 주체의 균열을 드러내었고, 그들이 식민지 근대에 대해 가졌던 불안을 한 단면을 표면화하였다.

V. 결론

이 글에서는 식민지 근대 조선의 영토 내에서 존재하였던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에 주목하여, 그 공간들이 가졌던 실제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런 헤테로

토피아적 공간에 대한 식민지 근대 지식인들의 담론화 방식을 살펴보아, 식민지 근대 지식인들이 ‘모던’이라 명명되었던 식민지 근대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드러내었는지 알아보았다.

식민지 근대의 헤테로토피아는 대개 만주와 같은 조선 영토 너머의 공간으로 대표되거나, 조선의 영토 내부에서는 극장이나 백화점, 관광지로서의 온천과 같이 근대적 소비문화가 환상적으로 구현되던 공간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일상이자 정상의 상식선으로 기능하였던 근대라는 기준에서 보면, 식민지 근대인들에게 가장 이질적으로 나타났던 공간은 오히려 ‘모던’이라는 근대성의 속성을 초과하거나 결여한 공간들이었다. 식민지 조선 내에서 이런 이질적 공간은 탐동공원과 정신병동인 동팔호실로 나타났다.

탐동공원과 동팔호실은 모던이 실패한 공간으로 표상되었다. 탐동공원은 근대의 합리성을 이해하지 못한 운명론자들인 사주쟁이나 관상쟁이가 모여드는 장소였으며, 근대로의 시대적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날이야기에 빠져사는 고담꾼들의 집합소, 근대 자본주의 시장에 생산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업자 룸펜들의 시간 죽이기 장소였다. 동팔호실의 정신병자들은 모던이 내세운 상징적 기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표 자체에 집착함으로써 모던한 삶의 주체가 되는 데에 실패하였다. 근대적 정치권력에 대한 집착, 자본주의의 상징인 돈에 대한 집착, 근대적 연애 열풍 속에서 열정적 사랑에 대한 맹목적 집착으로 일상의 상식적인 경계선을 넘어서 버린 자들이 격리된 곳이 동팔호실이었다.

탐동공원과 동팔호실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근대적 질서에서 배제되어 격리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 공간들은 식민지 근대의 현실 속에서 그 기능을 잃으며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 생명력을 유지하였다. 이 공간들이 죽은 공간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 공간들이 유토피아적 열망을 구현하는 공간이라는 상징을 획득하였기 때문이었다. 탐동공원과 동팔호실에서는 당대 금지되어 사라진 기표였던 ‘독립’이 공공연하게 발화되었다. 사라진 기표였기에 현실의 절망을 넘어서는 막연한 희망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모든 보장을 상상할 수 있게 하였던 독립의 유토피아가 이 공간들에서 실천되거나 발화되었다. 이렇게 현실 속에 존재하는 유토피아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탐동공원과 동팔호실

은 식민지 근대의 시선에서 이질적인 공간이지만 기존의 질서 체제에 이의 제기를 하는 헤테로토피아로 기능할 수 있었다.

이런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은 식민지 근대의 지식인들의 담론화 방식을 통해 나타났다. 이 담론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근대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이 가진 특징 그리고 식민지 근대 체제 내에서 헤테로토피아라는 공간이 발휘했던 효과가 규명되었다. 식민지시기 근대적 지식인들은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인 탐동공원과 동팔호실을 괴담의 생성지이자 괴담이라는 틀로 포착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취급하였다. 괴담을 유포하는 공간이라는 시선은 표면적으로는 그 공간 속에서 발화된 것들을 허황된 것으로 치부하는 태도이다. 이는 모던적이지 않은 것이나 시대착오적인 것에 대한 지식인들의 거부 반응과 연결되었다. 이러한 괴담 생성의 공간에서는 당국에 대한 비판적 시국연설들 또한 정신병자의 헛소리와 같은 괴담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헤테로토피아가 괴담의 유포지로 표상될 때, 거기에 나타나는 근대적 지식인의 인식에는 거부의 반응 이외의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괴담이라는 틀로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을 표상하면서 그 시대의 모던적 질서가 내재한 불안의 지점을 노출시켰다. 이는 정신병을 괴담의 대상으로 다루는 방식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다. 근대적 지식인들은 모던의 맥락에서 이해되지 않는 모든 대상들을 정신병이라는 근대적 개념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것들을 근대적 진리 체계의 방법으로 분류하면서 그것들을 근대적 질서의 맥락으로 포섭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괴담이라는 틀은 그 설명 방식이 실패하는 지점을 보여주었다. 괴담은 근대의 합리적 지식 체계를 모두 동원해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괴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괴담은 그 자체로 근대적 합리성의 실패와 균열을 드러내게 된다. 근대적 합리성의 실패는 근대적 진리 체계의 실패를 가리키며, 동시에 근대 자본주의 체계의 실패와 균열 그리고 근대적 정치 체계의 불완전성도 의미하게 된다. 이는 식민지 근대 조선에서 구현되고 있었던 근대적 소비문화의 향유가 제대

로 된 근대적 주체를 탄생시킬 수 없음을, 근대화를 통한 식민지 발전사관이 라는 지배 체제의 이데올로기나 진보나 발전을 통한 국권의 회복이라는 근대적 지식인들의 정치적 인식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근대적 지식인들이 기반으로 삼았던 모던의 체제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근대적 지식인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은 이러한 지식인들의 불안을 작동시켰던 공간이었다. 괴담이 떠도는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은 모던의 질서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노출시켰다. 이에 따라 근대적 진보나 발전이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가정되는 희망적 유토피아에 대한 불확신을 표면화하였다.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은 근대적 지식인들의 인식 기반이었던 근대적 질서의 불완전성을 가시화하며, 모던의 세계가 붕합하려 하였던 불안과 두려움을 작동시켰다.

❖ 참고 문헌

- 곽은희, 「틈새의 헤테로토피아, 만주」, 『人文研究』 70호, 2014.
- 김미경, 「상상계와 현상계의 사이: 헤테로토피아로서의 하얼빈」, 『人文研究』 70호, 2014.
- 김학중,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다른 공간” 문제 연구 - 『만주시인집』과 『만선일보』 문예란 시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3권 1호, 2015.
- 노상래, 「헤테로토피아, 제3의 눈으로 읽는 만주」, 『人文研究』 70호, 2014.
- 백승숙, 「만주, 담론의 불안, 혹은 헤테로토피아」, 『人文研究』 74호, 2015.
- 서재길, 「나운규 영화와 만주」, 『人文研究』 70호, 2014.
- 이영희, 「일본소설 속의 헤테로화(化)하는 공간, 만주 -투영(投影), 반전(反轉), 이질성(異質性)의 병치-」, 『人文研究』 70호, 2014.
- 이종대, 「근대의 헤테로토피아, 극장」, 『상허학보』 16호 2006.
- 이주라, 「일제강점기 괴담의 특징과 한국 공포물의 장르적 관습」, 『우리문화연구』 45호, 2015.

- 이진형, 「식민지 시기 여가와 불모의 헤테로토피아」, 『批評文學』 57호, 2015.
- 조정우, 「만주의 재발명」, 『사회와 역사』 107호, 2015.
- 홍은숙, 「헤테로토피아로의 여정: 만주 웨스턴 <놈놈놈>과 스파게티 웨스턴 <놈놈놈>에 나타난 비선형 산만한 공간」, 『人文研究』 70호, 2014.
- 김백영, 『지배와 공간: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지성사, 2014.
- _____, 『말과 사물』, 이규현 역, 민음사, 2012.
- _____, 『비정상인들』, 동문선, 2001.
- 요시미 순야 외, 『확장하는 모더니티』,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와 젠더 세미나팀’, 소명출판, 2007.
- 가와무라 구니미쓰 외, 『내셔널리즘의 편성』, 한윤아 외 역, 소명출판, 2014.
- 미리엄 실버버그, 『에로틱 그로테스크 년센스』, 강진석 외 역, 현실문화, 2014.
- 신문: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 잡지: 『개벽』, 『별건곤』, 『삼천리』

www.heterotopiastudies.com

❖ ABSTRACT

Heterotopia, Strange Stories, and Modern Anxiety in the Colonial Era

Lee, Jura

This article focused on heterotopian spaces of modern Korea in the colonial era. This paper attempted to understand the features of heterotopia in the era. Heterotopia was slightly grotesque in modernity, but in the colonial era, people expected to realize the hope of contemporary society. Also, while analyzing discourses on heterotopia, this study identified another point of view on modernity in the era. Pagoda Park, wher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was conducted and the psychiatric hospital East Ward Eighth, were heterotopian spaces at the times. Those spaces are represented as failure of modernity. Nevertheless, those spaces functioned as utopia, where people could speak freely on ‘the independence’. But the governing system considered such speech as deceptive strange stories. Strange stories that inexplicably, revealed imperfection of the governing system and caused anxiety about the foundation of daily life. In conclusion, this article could provide understanding of another side of acceptance of modernity in the colonial era i.e., anxiety. It was revealed through the finding of heterotopia and analyzing discourses on heterotopia in the colonial Korea.

Key Words

heterotopia, goedam(怪談, strange story), pagoda park, psychiatric ward, donpalhosil(east ward eighth), grotesque, utopia

논문접수일: 2016년 02월 08일

심사완료일: 2016년 03월 07일

게재확정일: 2016년 03월 10일